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장 춘 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본 연구는 스트레스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부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각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 및 부부가 함께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그들의 결혼만족간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서울 근교 도시에 거주하는 226쌍의 부부들이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배우자 내 분석과 배우자 교차 분석으로 구분하여 탐색한 결과,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냈다. 남편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건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서 자신과 아내 모두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나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는 아내의 지지행동, 자신과 아내 모두의 갈등해결행동에 의하여 부분 매개되었다. 아내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건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서 자신과 남편 모두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는 자신과 남편 모두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에 의하여 부분 매개되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 상호간의 지지행동은 갈등해결행동보다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두 배 이상 컸다. 이 결과는 결혼만족의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사건과 부부간의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갈등해결기술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지지적인 행동교환과 정서적 친밀감이 부부가 스트레스 사건을 함께 대처하고 결혼만족을 높이는데 중요한 자원과 기술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부의 지지행동, 갈등해결행동, 경제적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활사건스트레스, 결혼만족

[†] 교신저자 : 장춘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강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80-10
E-mail : encchang@hanmail.net, Tel : 010-2548-4415

결혼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흔히 다루어져 온 주제는 부부관계의 질(marital quality)에 관한 것이다. 일반 성인들이 심리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결혼생활에서 겪는 곤란 때문이며, 가족의 핵심 체계인 부부체계의 기능이 부부 자신들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구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혼을 성공 혹은 실패로 만드는 요인에 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행동주의 이론을 기초로 하는 부부관계 이론들은 결혼만족도가 부부관계에서 주고받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관계 안에서 나누는 긍정적인 행동이 결혼관계를 강화시켜주며, 부정적인 행동이 결혼관계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Gottman, 1993; Jacobson & Margolin, 1979).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부의 의사소통이나 갈등을 해결할 때의 부부 상호간의 행동에 집중되어왔으며, 이를 중심으로 부부관계의 질과 결혼의 해체가능성 정도를 파악해 왔다. 부부간의 서로 다른 욕구와 의견 차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결혼생활의 만족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갈등을 해결할 때 효과적인 갈등해결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흐름과 치료적 초점은 부부관계의 보다 본질적인 부분인 결혼적응의 장기적인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영역을 간과하게 만들었다(Pasch & Bradbury, 1998).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에게는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 이상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 사람들은 갈등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소극적인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인 입장에서 결혼을 통하여 동반자 의식, 정서적 친밀감 등의 결혼이 제공하는 유익을 얻고자 결혼을 한다. 따라서 정서적 친밀감의 교류나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등 부부 상호간의 지지적인 행동을 결혼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현상일 것이다. Cutrona(1996b)는 부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에 상관없이 상대방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가 부부의 결혼만족 및 안정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부부간에 개인적인 곤란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하는 기술은 결혼만족 및 결혼해체를 예언하였으며, 이러한 지지 제공기술이 부족한 부부들의 결혼생활은 더 악화되고 해체될 가능성이 높았다(Pasch 등, 1998). 결혼관계에서 부부의 지지와 우울의 취약성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연구들(Davila, Bradbury, Cohan, & Tochluk, 1997)은 지지적인 부부관계가 우울 발생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부부의 지지적인 상호작용이 없을 때 우울의 취약성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지지와 관련하여 성차를 보고한 연구들(Acitelli & Antonucci, 1994; Julien & Markman, 1991)은 부부관계의 지지가 남편의 결혼만족에 비하여 아내의 결혼만족과 보다 더 많은 관계가 있으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아내의 결혼만족간의 관계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받는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간의 관계 보다 더 강하다는 결과들을 보여준다.

한편, 부정적인 사건이 인간의 건강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erkowitz, 1989)는 스트레스 사건이 부부들의 행동교환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Coyne과

Downey(1991)의 연구에 의하면, 만성적인 긴장과 급성의 스트레스가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부부의 지지를 대처행동으로 다룬 연구들(Belsky, Spanier, & Rovine, 1983; Conger, Elder, Lorenz, Conger, Simons, Whitbeck, Huck, & Melby, 1990; Simons, Lorenz, Wu, & Conger, 1993)은 경제적인 곤란을 심하게 느낄수록,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부부의 지지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이나 생활조건이 개인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면, 결혼관계에서 스트레스 사건은 부부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억제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의 질은 부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결혼생활의 안팎에서 부부나 각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스트레스 사건을 다루는데 소모하고, 서로에게 소홀하게 되고, 혹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부부 기능에 많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Karney & Bradbury, 1995).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겪는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들에 의하면, 생활사건이 많을수록 결혼의 적응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결혼생활로 고통을 겪는 남편들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남편들보다 결혼생활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 달에 일상적인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그러한 사건의 영향을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Whiffen & Gotlib, 1989). 전영민(2000)의 연구에서도 남편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쾌한 생활경험은 대처행동의 영향을 통해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아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없었으며, 남편

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에 비하여 크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공격적인 갈등해결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이정은, 2000). 결혼생활의 불만족이나 악화를 야기하는 것은 비단 부부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도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부부가 함께 겪게 되는 가정 경제의 악화나 곤란은 욕구좌절로 인한 공격적 행동이나 폭력을 증가시켜 이혼, 가족해체, 신체적 학대, 아동학대 등 친밀한 관계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된다(Conger 등, 1990). 미국의 대공황과 1980년대의 경제적 위기 때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1998년 IMF 이후에 실직이나 실업으로 인한 소년 소녀 가장의 증가, 이혼, 배우자의 가출 등이 증가하였다는 보고(조성희, 1999)가 있다. 실직과 관련된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부부 관계가 해체된다는 연구결과들(Vinokur & van Ryn, 1993; Vinokur, Price, & Caplan, 1996)은 경제적 스트레스 사건이 우울과 불안을 촉진하고, 그러한 정서적인 상태가 결혼생활의 불만족이나 악화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결혼관계와 관련하여 이들 각 배우자의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와 부부차원의 스트레스를 구별하여 그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성차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Conger, Lorenz, Elder, Simons, & Ge, 1993; Conger 등, 1990). Conger와 그의 동료들(1993)의 연구에서, 남편들은 일이나 재정과 관련이 있는 생활사건에 더 많이 노출이 되며, 또 이에 더 민감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아내들은 가족 구

성원들과 관련된 대인관계 사건에 더 많이 노출되고, 또 민감하다고 보고하였다. Cohan과 Bradbury(1997)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대인관계 사건은 결혼만족과 관련이 있었으며, 남편과 아내의 실직이나 재정적 곤란과 관련된 생활 사건은 결혼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었다.

Karney 등(1995)은 결혼의 취약성-스트레스-적응(Vulnerability-Stress-Adaptation: VSA) 모형(그림 1)을 제안하면서 부부의 결혼만족 요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결혼만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사건과 부부간의 행동을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비록 이 모형에는 각 요인들의 관계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부부의 상호행동을 스트레스 사건이라는 외부 사건과 연결시켜줌으로써 부부간의 행동과 결혼만족간의 관계를 부부간의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맥락 안에서 다룰 수 있게 하며, 또한 부부간의 행동을 적응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간의 행동교환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행동모형의 접근을 확장하여 부부간의 갈등해결행동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지지행동

이 개인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 및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원인을 각 배우자 개인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부부가 함께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로 이분한 것은 1998년 이후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맞으면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는 부부해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해마다 ‘경제적 문제’는 ‘성격차이’ 다음으로 많은 이혼 사유로 집계되고 있어(통계청, 2008), 이들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자 함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부부 두 사람 모두를 연구에 포함하여 배우자 내 분석(within-spouse) 분석과 배우자 교차(cross-spouse) 분석을 통해서 부부행동의 상호성 또는 역동적인 측면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는 결혼만족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한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결혼만족을 설명함으로써 부부행동의 상호성을 소홀히 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차원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부부차원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서 부부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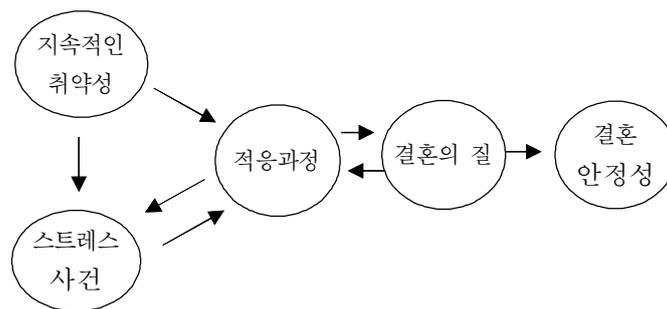


그림 1. Karney와 Bradbury(1995)의 취약성-스트레스-적응(VSA) 모형

동이 미치는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남편과 아내 집단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서 부부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부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 중에서 어떤 행동이 결혼만족과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서울시와 서울 근교 도시에 거주하는 부부들로서, 결혼연한이 2년 이상인 부부들이 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결혼 1년차의 신혼기 부부들을 연구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결혼해체의 위험을 또한 가장 높고(Karney 등, 1995), 부부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형성되기에는 이른 시기임(Cohan 등, 1997)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지인들을 통해 그들의 직장 동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단한 연구취지를 설명한 후 배부하여 수거하였다. 질문지는 아내용과 남편용의 2부를 한 쌍으로, 양면테이프가 붙어 있는 2개의 작은 봉투에 한 부씩 담아서 자료의 사용목적 및 실시방법에 관한 글과 함께 큰 봉투에 넣어 각 부부에게 전달하였다. 실시방법에서 각자의 질문지를 완전히 끝낼 때까지 서로 의견을 묻거나 의논하지 말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작성할 것과 작성한 후에는 각자의 작은 봉투에 넣어 봉한 후 큰 봉투에 담아 한 번 더 봉할 것을 강조하였다. 질문지는 총 314쌍의 부부들에게 배부되었으며, 그 중

250쌍의 질문지를 수거하였다(회수율 80%). 이들 수집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기재사항들을 누락한 경우 혹은 부부 중 한 배우자만 응답한 24쌍의 자료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서 총 226쌍(452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452명의 인구 통계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연령 분포는 25-70세 사이로 30대(45.1%)와 40대(38.3%)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평균연령은 39.8세(SD=7.73)였고, 남편과 아내의 평균연령은 각각 41.1세(SD=7.72), 38.6세(SD=7.57)였다. 결혼연한의 분포는 2-43년이었으며, 평균 결혼연한은 12.3년(SD=7.82)이었다. 전체 교육수준은 대졸(남편 43.56%, 아내 32.74%), 고졸(남편 27.11%, 아내 38.5%), 대학원 이상(남편 17.33%, 아내 8.41%) 전문대졸(남편 8.44%, 아내 13.72%), 중졸 이하(남편 3.56%, 아내 6.64%)순이었다.

측정 도구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영호(1993)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척도들에서 부정적인 생활사건들만 선택하여 제작한 질문지를 부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다른 변인들의 측정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곤란, 결혼생활의 갈등이나 부부문제를 묻는 9문항들을 제외한 43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 회고기간을 '지난 1년'으로 한정하였으며, 생활사건의 경험빈도 대신 경험유무와 사건의 심각성(예: 괴로움의 정도)을 평가하게 하였다. 이는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경제적 스트레스에 맞추어 이들을 동등한 수

준에서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질문지의 내용은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건강 상의 문제, 과중한 업무나 맡은 일에서의 실패, 시부모(처가 부모)나 다른 가족원, 직장동료나 상사, 친구 등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에 관한 것이다. 원 척도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남편 .92, 아내 .86이었다. 이 척도에서 얻은 점수가 클수록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인한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Lempers, Clark-Lempers와 Simons(1989)가 가족의 경제적 곤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제적 곤란 질문지(Economic Hardship Questionnaire)를 기초로 하여 박유신(1998)이 사용한 질문지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재정적인 곤란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동반응 등을 포함하여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의 내용은 소득 및 저축액의 감소, 각종 요금(세금, 신용카드 대금, 기타 청구서 대금)의 지출 곤란,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림, 경제적 필요에 의한 가족원의 취업 등에 관한 것이며, 개인의 생활사건 경험 질문지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Lempers, Clark-Lempers와 Simons(1989)가 보고한 이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6이었으며, 박유신이 보고한 값은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남편과 아내의 자료 모두에 대해 .94였다. 이 척도에서 얻은 점수가 클수록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지지행동

부부의 지지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Cutrona와 Suhr(1992)의 “사회적 지지행동 코드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지 유형을 구분한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Pasch 등(1998)의 “사회적 지지 상호작용 분류체계의 분류에 대한 기술”에서 부정적인 지지행동(예: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함, 자신의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고집함 등)으로 분류된 4가지를 문항에 추가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부 지지행동의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용된 척도는 각 배우자로부터 자신 및 상대방 배우자의 지지 행동에 관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 문항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직접 보고하는 형태와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행동을 지각하여 보고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이 실제 실행한 지지행동에 관하여 두 가지 정보원(본인과 상대방 배우자)을 채택함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부부의 지지행동 측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결혼에 대한 기술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막음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응답자는 문항에 대해 “전혀 없다”(1)에서 “항상 있다”(6) 까지 6점 척도의 행동 빈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부정적인 지지의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하였으므로, 이 척도에서 얻은 총점이 클수록 지지행동이 긍정적이며 그러한 지지행동의 빈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산출된 내적 합치도는 남편과 아내 모두 .94이었다.

갈등해결행동

부부의 갈등해결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Kerig(1996)의 “갈등 및 문제해결 척도(Conflicts and Problem -Solving Scales; CPS)”에서 갈등해결 전략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도구로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부부의 지지행동과 마찬가지로 각 배우자로부터 자신과 상대방 배우자의 갈등해결유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23문항이며, 6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갈등해결유형에 대해 “전혀 없다”(1)부터 “항상 있다”(6)까지 행동빈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협력적인 갈등해결유형의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하였으므로, 이 척도에서 얻은 총점이 클수록 갈등해결방식이 부정적이고 그러한 행동의 빈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원 척도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70에서 .87까지 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남편이 .85, 아내가 .84이었다.

결혼만족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부부 관계를 다루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Norton(1983)의 부부관계의 질 지표(QMI: Quality Marriage Index)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결혼관계에 관한 연구자들이 관계의 만족도나 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경우에 다른 관련 변인들을 측정하는 도구의 문항들과 중복되거나 상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평가할 것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이다(Fincham & Bradbury, 1987). QMI는 결혼생활 만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번 문항까지는 Likert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아주 많이 그렇다(7))로, 6번째

문항은 10점 척도(절대적으로 불행하다(1)-완벽하게 행복하다(10))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는 남편과 아내의 자료에 대해 각각 .96, .97로, 높은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었다.

자료 분석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하였다.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서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 행동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를 통계처리 프로그램 SAS와 LISREL을 이용하여 분석, 처리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남편과 아내 각각의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지지행동, 갈등해결행동, 결혼만족도 변인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표 1과 같다. 부부의 결혼만족은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지지행동, 갈등해결행동과 관계가 있었다. 특히, 남편의 결혼만족은 아내의 지지행동($r=.60, p<.001$) 및 남편 자신의 지지행동($r=.58, p<.001$)과 높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아내의 결혼만족은 남편의 지지행동($r=.69, p<.001$) 및 아내 자신의 지지행동($r=.66, p<.001$)과 높은 정적 관계를 보여 부부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결혼생

표 1. 남편과 아내의 스트레스, 지지행동, 갈등해결행동 및 결혼만족간의 상관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1 | 1.00 | | | | | | | | | |
| 2 | .62*** | 1.00 | | | | | | | | |
| 3 | -.17* | -.19** | 1.00 | | | | | | | |
| 4 | .27*** | .28*** | -.60*** | 1.00 | | | | | | |
| 5 | -.30*** | -.36*** | .58*** | -.50*** | 1.00 | | | | | |
| 6 | .43*** | .38*** | -.28*** | .37*** | -.31*** | 1.00 | | | | |
| 7 | .42*** | .70*** | -.25*** | .37*** | -.33*** | .50*** | 1.00 | | | |
| 8 | -.24*** | -.27*** | .83*** | -.55*** | .60*** | -.28*** | -.27*** | 1.00 | | |
| 9 | .29*** | .31*** | -.48*** | .80*** | -.48*** | .33*** | .35*** | -.58*** | 1.00 | |
| 10 | -.22** | -.24*** | .69*** | -.60*** | .56*** | -.35*** | -.36*** | .66*** | -.55*** | 1.00 |
| 평균 | 1.61 | 1.87 | 4.11 | 2.64 | 5.77 | 1.52 | 1.87 | 4.22 | 2.61 | 5.21 |
| 표준편차 | .51 | .82 | .78 | .49 | 1.43 | .41 | .80 | .73 | .47 | 1.76 |

주. 1. 남편의 부정적인 생활사건스트레스 2. 남편의 경제적 스트레스 3. 남편의 지지행동 4. 남편의 갈등해결 행동 5. 남편의 결혼만족 6. 아내의 부정적인 생활사건스트레스 7. 아내의 경제적 스트레스 8. 아내의 지지행동 9. 아내의 갈등해결행동 10. 아내의 결혼만족

남편 $n=226$, 아내 $n=226$

* $p < .05$ ** $p < .01$ *** $p < .001$

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r=.56, p < .001$)으로 나타났다.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배우자 내(within-spouse) 분석과 배우자 교차(cross-spouse) 분석으로 구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우자 내 분석(within-spouse analyses)

배우자 내 분석은 아내와 남편 각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자신의 부부행동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결과,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그림 2와 같고, 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유의도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직접효과와 관련한 경로계수에서 남편과 아내 집단 모두에서 나타난 동일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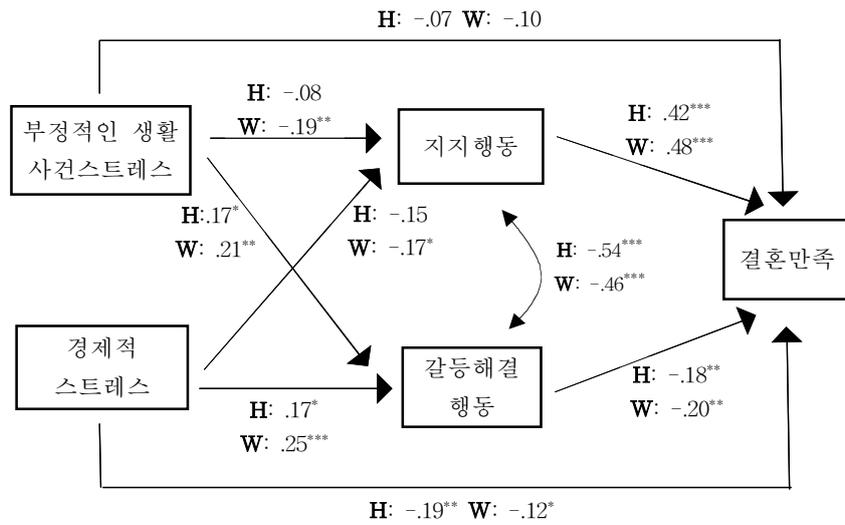


그림 2. 자신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주. 남편(H)*n*=226 아내(W)*n*=226

* *p* < .05 ** *p* < .01 *** *p* < .001

표 2. 배우자 내 분석에서 직접, 간접, 전체효과

| 경로 | 직접 효과 | | 간접 효과 | | 전체 효과 | | 효과 | |
|------------------------|---------|---------|--------|---------|----------|----------|----|----|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부정적인 생활사건스트레스 → 지지행동 | -.076 | -.192** | - | - | -.076 | -.192** | 매개 | 완전 |
| 부정적인 생활사건스트레스 → 갈등해결행동 | .166* | .205** | - | - | .166* | .205** | 효과 | 매개 |
| 부정적인 생활사건스트레스 → 결혼만족 | -.069 | -.100 | -.062 | -.133** | -.131 | -.233*** | 없음 | |
| 경제적 스트레스 → 지지행동 | -.146 | -.174* | - | - | -.146 | -.174* | 부분 | 부분 |
| 경제적 스트레스 → 갈등해결행동 | .173* | .249*** | - | - | .173* | .249*** | 매개 | 매개 |
| 경제적 스트레스 → 결혼만족 | -.188** | -.115* | -.092* | -.133** | -.280*** | -.248*** | | |
| 지지행동 → 결혼만족 | .418*** | .483*** | - | - | .418*** | .483*** | | |
| 갈등해결행동 → 결혼만족 | -.182** | -.196** | - | - | -.182** | -.196** | | |

* *p* < .05 ** *p* < .01 *** *p* < .001

갈등해결행동이 증가했다(H: $\beta=.166$, $p<.05$; W: $\beta=.205$, $p<.01$).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갈등해결행동이 증가했다(H: $\beta=.173$, $p<.05$; W: $\beta=.249$, $p<.001$). 부정적인 갈등해결행동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은 낮았다(H: $\beta=-.182$, $p<.01$; W: $\beta=-.115$, $p<.05$).

=-.196, $p < .01$).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감이 낮았다(H: $\beta = -.188$, $p < .01$; W: $\beta = -.115$, $p < .05$).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지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과 아내 집단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스트레스의 원인과 무관하게 스트레스는 지지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지지행동이 많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beta = .418$, $p < .001$). 반면, 아내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지지행동은 감소했다(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 $\beta = -.192$, $p < .01$; 경제적 스트레스: $\beta = -.174$, $p < .05$). 긍정적인 지지행동이 많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beta = .483$, $p < .001$). 간접효과와 관련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서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나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는 갈등해결행동에 의하여 부분 매개되었다($\beta = -.092$, $p < .05$). 아내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서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으며($\beta = -.133$, $p < .01$),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는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에 의하여 부분 매개되었다($\beta = -.133$, $p < .01$). 특히, 남편과 아내 모두 지지행동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갈등해결행동의 영향보다 두 배 이상 컸다. 또한 남편들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beta = -.188$)는 간접효과($\beta = -.092$)보다 두 배 가량 컸다.

배우자 교차 분석(cross-spouse analyses)

배우자 교차분석은 아내와 남편 각자가 경

험하는 스트레스가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행동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결과,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그림 3과 같고, 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유의도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직접효과와 관련한 경로계수에서 남편과 아내 집단 모두에서 나타난 동일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방 배우자의 긍정적인 지지행동이 감소했고(H: $\beta = .197$, $p < .05$; W: $\beta = .147$, $p < .05$),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적인 갈등해결행동은 증가했다(H: $\beta = .219$, $p < .01$; W: $\beta = .246$, $p < .001$). 상대방 배우자의 긍정적인 지지행동이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H: $\beta = .464$, $p < .001$; W: $\beta = .511$, $p < .001$).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적인 갈등해결행동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은 낮았다(H: $\beta = -.144$, $p < .05$; W: $\beta = -.217$, $p < .001$).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감이 낮았다(H: $\beta = -.157$, $p < .05$; W: $\beta = -.119$, $p < .05$). 그러나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상대방 배우자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과 아내 집단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아내의 지지행동, 아내의 갈등해결행동, 자신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반면, 아내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긍정적인 지지행동은 감소했고($\beta = -.204$, $p < .01$), 남편의 부정적인 갈등해결행동은 증가했다($\beta = .242$, $p < .001$). 간접효과와 관련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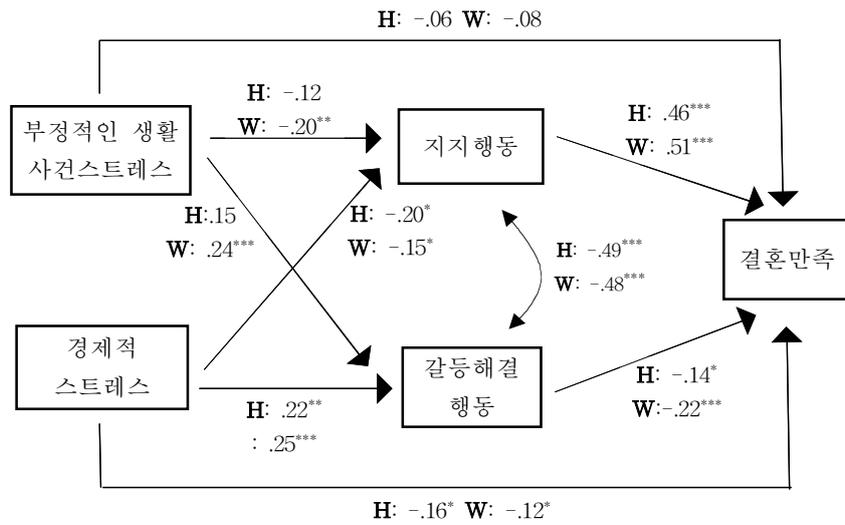


그림 3. 상대방 배우자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주. 남편(H) n=226, 아내(W) n=226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배우자 교차 분석에서 직접, 간접, 전체효과

| 경로 | 직접 효과 | | 간접 효과 | | 전체 효과 | | 효과 | |
|------------------------|---------|----------|--------|---------|----------|----------|----------|-------|
|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남편 | 아내 |
| 부정적인 생활사건스트레스 → 지지행동 | -.117 | -.204** | - | - | -.117 | -.204** | 매개 효과 없음 | 완전 매개 |
| 부정적인 생활사건스트레스 → 갈등해결행동 | .151 | .242*** | - | - | .151 | .242*** | | |
| 부정적인 생활사건스트레스 → 결혼만족 | -.055 | -.077 | -.076 | -.156** | -.131 | -.233*** | | |
| 경제적 스트레스 → 지지행동 | -.197* | -.147* | - | - | -.197* | -.147* | 부분 매개 | 부분 매개 |
| 경제적 스트레스 → 갈등해결행동 | .219** | .246*** | - | - | .219** | .246*** | | |
| 경제적 스트레스 → 결혼만족 | -.157* | -.119* | -.123* | -.129** | -.280*** | -.248*** | | |
| 지지행동 → 결혼만족 | .464*** | .511*** | - | - | .464*** | .511*** | | |
| 갈등해결행동 → 결혼만족 | -.144* | -.217*** | - | - | -.144* | -.217*** | | |

* p < .05 ** p < .01 *** p < .001

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서 아내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나 경제적 스트

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는 아내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에 의하여 부분 매개되었다($\beta = -.123, p < .05$). 아내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

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서 남편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으며($\beta = -.156, p < .01$),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는 남편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에 의하여 부분 매개되었다($\beta = .129, p < .01$). 특히,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 배우자의 지지행동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갈등해결행동의 영향보다 두 배 이상 컸다.

논 의

본 연구는 서울시와 서울 근교 도시에 거주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부부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의 매개작용을 통하여 각 배우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 및 부부가 함께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그들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탐색을 통하여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부부가 개인 및 부부로서 함께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이나 위기 속에서 부부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이 관계의 만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예방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배우자 내 분석과 배우자 교차 분석으로 구분하여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탐색한 결과는 스트레스 사건의 원인과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의 경우, 아내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결혼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나 자신과 남편 모두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아내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아내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결혼만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자신과 남편 모두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을 통해서도 결혼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내가 부정적인 생활사건과 경제적인 곤란을 경험함으로써 이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내와 남편 모두 서로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서로간의 부정적인 갈등해결행동은 증가하여 아내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저하함을 의미한다.

둘째, 부부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이 남편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경우와 달랐다. 남편의 경우, 남편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결혼만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내 모두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을 통하여 결혼만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없었다. 이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남편과 아내 모두의 지지행동이나 갈등해결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편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결혼만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아내의 지지행동, 자신과 아내 모두의 갈등해결행동을 통해서도 결혼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편이 경제적인 곤란을 많이 경험할 때 아내에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지지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남편에게 제공하는 아내의 긍정적인 지지행동은 감소하고, 부부 서로간의 부정적인 갈등해결행동은 증가하여 남편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긴장이 남편들의 온화한 태도를 감소시키는 것보다 적대감을 더 많이 증대시킴으로써 아내의 결혼만족을 감소시켰다는 연구들(Conger 등, 1990, 1992; Simons 등, 1993)과 유사한 결과이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 사건보다 쉽게 좌절이나 분노 등을 유발하고, 대인관계 행동을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게 하여 부부간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같다. 특히, 남편들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지지행동이 감소하는 것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단지 남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겪는 어려움이므로 이것이 아내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지지행동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내의 갈등해결행동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활사건스트레스와 남편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에 대해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아내가 자신의 개인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는 남편과 갈등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반면에, 남편이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는 남편과의 상호작용이나 갈등을 회피함으로써 남편과 갈등을 다루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부간에 나누는 구체적인 행동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아내와 남편 모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편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영향은 자신의 부부 상호작용행동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간접영향보다 두 배 가량 컸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갖는 남편들의 주된 역할이 가정의 생계 유지자로서의 역할이므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느끼고, 이로

인해 아내와 결혼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아내의 경우에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영향이나 부부간의 상호작용 행동을 통한 간접영향 간에 차이가 없는 바, 아내들은 일 보다는 관계 중심적이고, 결혼관계에 투자하는 경향이 남편들보다 강하여서 남편들에 비하여 관계에서 주고받는 행동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경우에, 갈등해결 행동은 지지행동에 비하여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나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해결행동이 지지행동에 비하여 스트레스 사건에 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은 욕구좌절을 일으키고, 욕구좌절은 공격적인 행동을 쉽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일상 업무의 긴장이 부부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Bolger, DeLongis, Kessler, & Wethington, 1989; Repetti, 1989)과 유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 상호간의 지지행동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갈등해결행동의 영향보다 두 배 이상 컸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들이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손상이나 압박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에 비하여 개인의 적응이나 관계와 보다 더 관련이 있었고(Lakey, Tardiff, & Drew, 1994; Manne & Zautra, 1989; Schuster, Kessler, & Aseltine, 1990; Vinokur 등, 1993), 결혼만족에 대한 지지와 갈등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검증, 비교하였을 때, 부부의 지지나 갈등은 결혼만족과 동일한 정도의 관계가 있

있음(Vinokur 등, 1996)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에서 갈등적인 행동은 결혼만족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지지적이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조성하는 긍정적인 행동이 결혼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전영민, 2000), 결혼만족에서 부부간 지지행동의 일차적인 중요성은 부부의 지지가 긍정적인 정서 분위기와 연합감을 촉진할 수 있고, 피할 수 없는 의견의 불일치와 갈등이 있을 때에라도 긍정적인 지지 행동이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파괴적인 행동의 상승을 예방할 수 있다(Cutrona, 1996a)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배우자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주의력을 증진시키는 훈련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치료의 핵심요소이었다고 하는 연구결과(Jacobson 등, 1979)와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정서중심적 부부치료의 가정(박성덕 역, 2006)에 비추어 본다면, 부부간의 존중감 및 정서적 지지는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 상호간의 행동과 결혼만족을 “은행 통장(bank account)” 모델로 설명하는 바(Jacobson 등, 1979)에 의하면, 부부간의 정서적인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존중감,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긍정적인 행동교환은 결혼만족이라는 통장에 예금되고, 사소한 화풀이에서부터 부부 폭력, 모욕 등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결혼만족이라는 통장에서 저축된 사랑을 인출하며, 결과적으로 결혼만족이라는 통장의 잔고는 입금과 인출간의 관계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기대와 거의 모든 결혼관계의 출발점이 애정의 교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함께 다루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에 관한 행동주의 접근의 가정을 확대하여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갈등해결행동이라는 부정적인 행동교환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제까지 결혼연구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던 부부의 지지행동이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측면을 갈등해결행동과 함께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다루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부부 개인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가족의 경제적 곤란이라는 두 가지 스트레스 원인을 포함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 및 부부 혹은 가족 차원의 스트레스가 부부 상호행동 및 결혼만족과 갖는 관계 양상과 그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는 것도 본 연구의 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 행동의 상호성을 고려하여 부부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의 매개작용을 통하여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배우자 내 분석과 배우자 교차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는 것도 본 연구의 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고려할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와 상대방보고의 두 가지 출처에 의해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에 관한 정보를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바람직성과 자신들의 결혼에 관한 전반적인 느낌이 질문지 응답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행동모델에 입각한 부부 상호작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관찰 연구이거나 종단적인 설계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이며,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으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질문

지에 의한 횡단적인 방법을 택한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에 관한 취약성-스트레스-적응 모형은 모형에 포함된 각 요인들의 관계를 구체화하지 않은 모형이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에 중점을 두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혀보는 시도를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부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을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부의 자원으로 가정하고,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과정에서 이들 부부간의 상호행동이 갖는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s)를 탐색하기를 기대한다.

셋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나, 부부의 지지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의 부부간 상호작용 그 자체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더 컸다. 특히, 부부의 지지행동은 갈등해결행동보다 결혼만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지지행동보다는 부부간의 갈등해결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효율적인 갈등해결 기술은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부관계를 증진하는데 더욱 필요한 부부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교육이나 훈련,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앞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갈등해결 기술을 증진하는 내용과 함께 지지적인 행동교환을 실행하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부부가 스트레스 사건을 함께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문제가 심화되고 갈등이 고조되기 전에 조화로운 부부

관계를 만들게 하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유신 (1998). 기혼남성의 경제적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비난행동지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덕 역 (2006). 정서중심적 부부치료. 서울: 학지사.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은, 윤호균 (2007). 기혼여성의 마음챙김과 부부의사소통패턴, 결혼만족도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331-345
- 임승락 (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만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민 (2000).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에 관한 취약성-스트레스-적응 통합모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성희 (1990).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능성에 관한 연구: 실직가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08). 2007년 이혼통계결과. <http://www.nso.go.kr>
- 허윤정 (1997).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

- 도 연구: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itelli, L., & Antonucci, T. (1994). Gender differences in the link marital support and satisfaction in olde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688-698.
- Belsky, J., Spanier, G. B., & Rovine, M. (1983).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67-577.
- Bero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Bolger, N., DeLongis, A., Kessler, R. C., & Wethington, E. (1989). The contagion of stress across multiple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75-183.
- Cohan, C. L., & Bradbury, T. N. (1997). Negative life events, marital interaction, and the longitudinal course of newlywed marri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14-128.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J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ger, R. D., Elder, Jr., G. H., Lorenz, F. O., Conger, K. J., Simons, R., Whitbeck, L. B., Huck, S., & Melby, J.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56.
- Coyne, J. C., & Downey, G. (1991). Social factors and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2*, 401-425.
- Cutrona, C., Cohen, B. B., & Igram, S. (1990). Contextual determinants of the perceived supportiveness of helping behavio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553-562.
- Cutrona, C., & Suhr, J. A. (1992). Controllability of stressful events and satisfaction with spouse support behaviors. *Communication Research, 19*, 154-174.
- Cutrona, C. E. (1996a) Social support as a determinant of marital quality: The interplay of negative and supportive behaviors. In G. R. Pierce, B. R. Sarason, & I. G. Sarason (Eds.),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p. 173-194). New York: Plenum Press.
- Cutrona, C. E. (1996b). *Social support in couples*. New York: Sage.
- Davila, J., Bradbury, T. N., Cohan, C. L., & Tochluk, S. (1997). Marital functioning and depressive symptoms: Evidence for a stress generation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849-861.
- Fincham, F. D., & Bradbury, T. N. (1987). The assessment of marital quality: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97-809..
- Gottman, J. M. (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15.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Julien, D., & Markman, H. J. (1991).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s as determinants of individual and marital outcom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549-568.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7). Neuroticism, marital interaction, and the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75-1092.
- Kerig, P. K. (1996). Assessing the links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he conflicts and problem-solving sca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454-473.
- Lakey, B., Tardiff, T. A., & Drew, J. B. (1994). Negative social interactions: Assessment and relations to social support, cogni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42-62.
- Lempers, J. D., Clark-Lempers, D. S.,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Manne, S. L., & Zautra, A. J. (1989) Spouse criticism and support: Their association with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women with rheumatoid arthrit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608-617.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 Pasch, L. A., & Bradbury, T. N. (1998). Social support,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marital dysfun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219-230.
- Pasch, L. A., Bradbury, T. N., & Sullivan, K. T. (1997) Social support in marriage: An analysis of intraindividual and interpersonal components. In G. R. Pierce, B. Lakey, I. G. Sarason, & B. R. Sarason. (Eds.), *Sourcebook of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pp. 229-256). Plenum Press, New York.
- Repetti, R. L. (1989). Effect of daily workload on subsequent behavior during marital interaction: The role of social withdrawal and spouse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52-659.
- Schuster, Kessler, & Aseltine, (1990). Supportive interactions, negative interactions, and depressed mood,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423-438.
- Simons, R. L., Lorenz, F. O., Wu, C., & Conger, R. D. (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68-381.
- Vinokur, A. D. & van Ryn, M. (1993). Social support and undermining in close relationships: Their independent effects on the mental health of unemployed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50-359.
-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66-179.
- Whiffen, V. E., & Gotlib, I. H. (1989). Stress and coping in marit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 327-344.
- 1 차원고접수 : 2009. 2. 8.
심사통과접수 : 2009. 3. 6.
최종원고접수 : 2009. 3. 18.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Support and Conflict Resolution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Chunmee Chang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end a behavioral model for marriage with respect to marital support and conflict resolution behavior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both negative life events and economic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marital support and conflict resolution behavior. 226 married coupl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vicinity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in two ways; 1) within-spouse analyses, and 2) cross-spouse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support and conflict resolution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varied by gender and causes of the stress. For husbands, neither their own and their wives' marital support nor their own and their wives' conflict resolution behavior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negative life events and their marital satisfaction. However, economic stress influenced partially their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ng effects of their wives' marital support and their own and their wives' conflict resolution behaviors. For wives, their negative life events influenced directly and indirectly the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both their own and their husbands' support and conflict resolution behaviors. Both their own and their husbands' marital support and conflict resolution behaviors mediated part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ress and her marital satisfaction. Both husbands and wives economic stress influenced directly their marital satisfaction. Specifically, their own and their spouses' marital support influenced their marital satisfaction more than conflict resolution behaviors di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recommended.

Key words : marital support, conflict resolution behavior, economic stress, negative life events, marital satisfaction